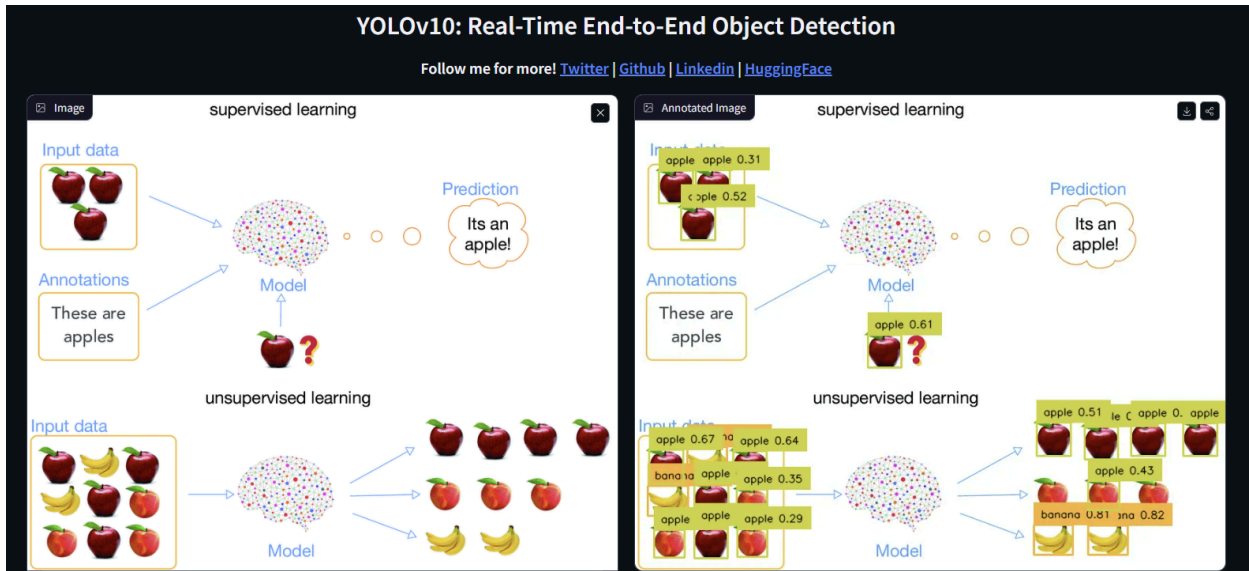


1. 사용한 Space 이름

**YOLOv10: Real-Time End-to-End Object Detection**  
(<https://huggingface.co/spaces/kadirnar/Yolov10>)

2. 어떤 기능/목적인지

- 사진을 업로드하면, 각 물체별로 객체탐지해서 몇 프로의 확률로 사과인지, 바나나인지 나타낸다.



- 위 사진처럼 왼쪽에 있는 기존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면, 모델, 이미지 크기, confidence threshold, 그리고 IoU threshold에 따라 각 object마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어떤 물체인지 자동감지한다.

3. 사용해본 소감

- 흥미로웠던(오싹한) 점: 예전에 Person of Interest를 봤을 때 인트로 장면이 사람을 탐지하는 것이었다. 그 장면이 아직도 흥미로운데, Yolo10v를 사용해보니, 이제는 웬만하면 거의 모든 객체를 높은 정확도로 탐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, 좀 많이 오싹해지기도 했다. 하지만, 인공지능 시대에 객체탐지는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기에 여기에 합류해서 암세포 표적치료 등 기술을 선용할 생각을하니 흥미로웠다.
- 아쉬운 점: 다행히일지도 모르겠지만, 아직 모델의 분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. 이 점은 아쉬웠지만, 정확도를 개선하는 모델을 만들면 내가 희망하는 도메인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다.

4. 이걸 통해 LLM이나 AI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

컴퓨터 등 기계는 거의 숫자로 밖에 인식을 못한다. 앞으로는 선형대수학에서 다루는 벡터와 벡터공간 등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. 이미지 등 디자인 분야도 3차원 채널을 조정하면 출력되는 사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이것이 컴퓨터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그리고 음악 등 음성신호도 어셈블러를 통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이 데이터를 통해 해당 주파수를 분석하면, 심정지, 뇌파분석, 입자 간의 진동 등 다양한 학문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.